

새누리 '심판' 제1야당 '경고'...국민의당에 '캐스팅 보트'

■국민의당 압승 배경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당 녹색 태풍은 야권 재편을 통해 정권 창출을 요구하는 호남 민심이 최대 동력이 됐다는 분석이다.

호남 민심은 20대 총선을 1년 앞둔 시점부터 크게 요동쳤다. 더 이상 친노 패권주의 정당으로는 정권 창출이 어렵다는 흐름을 보인 것이다. 지난 두 번의 총선과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여전히 당내 기득권에 머물러온 정당으로는 미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는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당권 경쟁에서 촉발됐다. 당시 당내 주류 세력을 상징하는 문재인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호남과 비주류를 대표하는 박지원 의원을 경선 불변경 등의 논란 끝에 가까스로 물리치고 당권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주류 세력에 대한 호남 민심의 이반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호남이 배제된 새정치민주연합 주류 세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같은 해 4월 치러진 광주 서구 을 국회의원 재보선에 광주 민심은 무소속 전정배 의원을 선택하며 새정치연합에 대한 심각한 민심 이반 현상을 나타냈다. 실제로 문재인 당시 대표가 수차례 광주를 찾아 지지 호소했지만 승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천 의원이 호남 정치 복원과 함께 내세운 뉴 DJ(김대중 전 대통령) 발굴 등의 공약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에 불을 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 등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고 선거 패배 등의 책임을 놓고 갈등을 거듭하면서 호남 민심 이반을 더욱 심화시켰다.

야권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 이반은 결국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당내 비주류 의원들과 안철수 의원의 탈당을 부르며 국민의당 정당의 기반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호남 민심에는 야권 재편을 통해 정권 창

“더민주에 미래 없다” 판단

국민의당 호남민심 부응

지역성 한계 극복이 과제

출을 이뤄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야권의 변방으로 밀린 호남 정치의 복원을 요구하는 뜻도 담겨있었다. 여기에 국민의당을 통한 새로운 개혁 정치에 대한 기대도 컸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호남 민심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는 못했다. 혁신 공천이 물 건너가고 물갈이 대상이었던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공천되면서 국민의당을 바라보는 호남 민심은 갈등을 거듭하기도 했다. 분열로 인한 야권의 총선 패배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

그러나 호남 민심은 더민주 보다는 국민의당에 힘을 몰아주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평가다. 국민의당에 실망감도 크지만 야권의 틀을 바꾸지 않고 정권 창출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호남이 주도하는 정권 창출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됐다. 수도권 호남 민심도 더민주와 국민의당에 대한 교차 투표를 통해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제 20대 국회에서 3당 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국민의당이 호남 민심의 기대에 얼마만큼 부응하는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당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대선을 앞둔 야권 재편 과정에서 호남 민심은 다시 한 번 전략적 선택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호남 민심은 국민의당을 제3당으로 만들어내면서 야권의 핵심 지지 기반의 위력을 유감없이 나타냈다”며 “호남 민심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요동칠 수 있어 주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안철수 재선 성공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서울 노원병 선거구에서 당선이 확실시된 국민의당 안철수 당선인이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자들의 축하를 받으며 손을 들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남의 지지 못받는 야당은 정권창출 할 수 없다”

■총선 결과에 담긴 민심

4·13 총선 결과는 ▲야권의 국정 및 정국 운영에 대한 심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경고 ▲제3당으로서 국민의당의 역할 기대 등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새누리당의 참패, 더민주의 호남 참패 속 수도권 승리, 국민의당의 호남 압승 속 화려한 제3당 부상’ 등으로 요약된 이번 총선 결과를 받아본 정치권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이처럼 복잡한 함의를 가진 표심은 처음 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야권 심판=국민은 우선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국정 운영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경제실패에 대한 심판도 그 한 줄기였다는 게 선거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청와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은 야권의 오만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적 반발을 부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박근혜정부는 극심한 레임덕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야권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정비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성과 새로운 모습으로 레임덕을 정면 돌파함은 물론 전열을 정비하지 않고서는 정권을 야권에 내줘야하기 때문이다. 야권의 변신이 주목받는다.

◇더민주 경고=야권 분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승리하고 영남권에 교두보를 확보한 더민주지만

마냥 즐거워할 수 없는 것은 텃밭인 호남에서 참패했기 때문이다.

호남지역에서는 더민주가 그동안 보여줬던 친노(친노무현) 패권주의 등을 심판했지만 수도권의 호남인들은 당선 가능한 야권후보에게 표를 줌으로써 더민주의 분발을 요구했다.

야당이 호남의 지지를 받지 않고는 정권을 찾아올 수도 없고 찾아올 명분도 가질 수 없다는 게 야권의 운명이다. 따라서 더민주의 향후 당내 최대 계파가 된 친문(친문재인)세력의 자중과 호남에 대한 진정한 자세로 정권교체 가능성을 보여줘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국민의당의 화려한 등장=간신히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며 우리 속에 출범한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돋보이는 성적을 거뒀다.

비록 수도권에서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호남을 거의 석권했고 수도권 교차투표의 힘을 받아 비례대표 투표에서 괄목할만한 성적을 냈다. 이에 따라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제3당으로서 캐스팅보트를 행사, 정국 운영의 중심에 서게 됐다.

다만, 호남지역 국회의원 위주로 구성된 당으로서 ‘호남 자민련’ 비판을 견뎌야 하는 수용, 전국 정당으로 성장하는 비전과 가능성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권의 중심축인 호남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보듬어 실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더민주 호남 참패...문재인 정계 은퇴 할까

사실상 불신임, 거취 연계 승부수 실패...수도권은 선전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압승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의 거취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총선 막판 광주 등 호남을 두 차례 방문, 호남 민심의 지지를 자신의 대선 불출마 및 정계 은퇴와 연계시키면서 더민주 후보 지지를 호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남 지역 총선 결과는 더민주의 참패로 나타나면서 사실상 호남 민심이 문재인 전 대표를 불신임한 것으로 귀결됐다.

정치권에서는 문 전 대표에 대한 호남 민심의 지지 기준으로 더민주가 최소한 호남에서 12~14석 정도는 확보해야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호남 민심의 핵심인 광주에서 더민주 후보들이 전멸하면서 문 전 대표의 정치적 퇴로가 차단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전 대표의 방문으로 예상됐던 호남지역 더민주 지지층 결집 현상도 국민의당 후보들이 상당한 격차로 승리하면서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평가다. 실제로 이흥실, 이형석, 유윤근, 신정훈, 백무현 후보 등 광주·전남지역 전문 성장 후보들은 별다른

힘을 못 쓰고 패배했다.

호남 민심이 문재인 전 대표가 상징하고 있는 더민주의 패권주의를 심판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선거 막판 이뤄진 문 전 대표의 호남 방문이 오히려 국민의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역풍을 부른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문 전 대표의 거취와 관련, 정치권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문 전 대표의 성향을 고려할 때, 조만간 정계 은퇴를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더민주 수도권 등에서 선전함에 따라 거취 문제를 놓고 장고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 전 대표가 스스로 호남 민심의 지지를 자신의 거취문제와 연계시키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실패로 돌아가면서 정치적 활로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차기 대선에서 여야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주자가 자진 사퇴하는 조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도심을 넘어 아웃도어까지
걸는 것 그 이상의 편안함, 메가웨이브

MEGAWAVE

megawave.treksta.co.kr

제품문의 | 1599-0055
대리점 개설문의 | 010-3582-5029 (박근우과장)

하이퍼폼 다른 밀도로 설계된 2개의 미드솔이 이지 모양의 발을 받쳐줍니다.

IST 자동처리의 서스펜션체럼, 거친 길도 부드럽게 걷게 해줍니다.

네스핏 내 발 모양 그대로를 본 것 같이 편안합니다.

보아 신발끈을 한 손으로 딱 맞출 수 있게 해줍니다.

메가웨이브 신고 “규슈 올레 여행”까지!

메가웨이브를 구매하시면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일본 규슈 올레 여행을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 3월 25일(금) ~ 4월 17일(일)
당첨자 발표 : 4월 18일(월) 개별 연락

메가웨이브 구매고객 모두 **뉴박스 발수제 증정**